

전북대 등 4개 기관, 금융 전문인력 양성

기금운용본부 이전 맞춰 지역 기반 특화 금융산업 발전 위한 협약 체결... 교육시설·프로그램 등 운영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으로 전북이 금융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대학교와 전라북도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등이 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4개 기관은 11일 오전 11시 전북대 본부 회의실에서 이남호 총장과 김승수 전주시장, 진 흥 전북도 정부부지사, 이원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5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기반 특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한 이번 협약에는 전북대와 전주시가 각각 5억 원씩의 자금을 지원해 2021년까지 5년 간 교육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금융·정보경제학과 연계한 학사과정의 융복합 전공과 금융·연경제학 석사과정 등을 새로 개설해 금융전문 인력 양성과 취업 지원에 매진한다.

전주시는 전북대와 함께 이에 추진되는 사업비 전액을 공동 부담하고 전라북도와 함께 행정적 지원도 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강의 지원과 취업 정보 제공에도 힘을 기울인다.



전주시는 11일 전북대학교 총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진흥 전북도 정부부지사, 이원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기행이 사, 이남호 전북대학교 총장 등 4개 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전문 인력양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남호 총장은 "기금운용본부 전주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 지역이 금융산업의 메카로 급부상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의미 있는 일이다"며 "4개 기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과 국가 발전을 이끌 금융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수 시장은 이날 "혁신도시는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성장 축이다. 약 5백50조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으로 전주는 세계적인 금융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글로벌 금융인력을 키워내 세계 3대 기금인 기금운용본부에 맞춤형 인력을 제공하고 이전 기관 직원들의 정주여건 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종 불편사항도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빗물이용시설 이용 활성화율 90%

월평균 1,052톤으로 연간 4,800만원 비용절감

무심코 하천으로 흘려보내기 쉬운 빗물을 재이용하기 위해 설치된 전주시 빗물이용시설의 이용률과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제25회 세계 물의 날' 주관을 맞아 지난 3월 한 달간 시 예산지원율 받아 설치된 빗물이용시설과 시민들이 직접 설치한 빗물이용시설 등 총 145개소의 빗물이용시설의 운영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시설의 90%에 해당하는 130개소 시설이 정상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의 활용에 따른 환경적·경제적 가치도 매우 높은 것으로 재확인됐다.

실제, 전주시가 145개 빗물이용시설의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2017년 3월 조사기준 빗물 총 사용량은 30,481톤으로, 최근 1년간(2016.3~2017.3) 사용

량을 반영해 추산한 연평균 사용량은 약 7,368톤, 월평균 사용량은 약 1,052톤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월평균 사용량인 1,052톤을 기준으로 빗물이용의 환경적·경제적 비용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빗물이용시설로 인한 연간 비용 총 절감액이 4784만 1677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도물 생산비용 및 하수처리 비용 절감액 2836만3603원(상수도 미사용량에 대한 수도물 생산비용 절감액 546만3667원+우수유출량 저감에 따른 하수처리비용 절감액 1144만9988원+상수도사용량 저감에 따른 하수처리비용 절감액 1144만3968원)과 상수도 사용료 절감액 1947만8074원(상수도 미사용량에 대한 상수도요금 절감액 1137만825원+하수도 미사용량에 대한 하수도요금 절감액 810만9824원)을 더한 것이다.

빗물 총 사용량을 시설별로 분석하면 공동주택(15,523톤/50.9%)과 공공

기관(12,129톤/39.8%)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도별로는 혼합용은 조경·청소용이 45.2%(13,771톤), 단일용은 조경용이 14.8%(4,526톤)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해소대책과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해 빗물이용시설의 지속적 사용과 빗물이용 활성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앞으로도 빗물이용시설을 꾸준히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김태수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무심코 하천으로 흘려보내기 쉬운 빗물은 조경, 청소, 세척, 세탁, 화장실, 텃밭 가꾸기, 분수 등 생활용수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빗물이용시설의 사후관리를 통해 빗물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빗물자원관리의 환경적·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전주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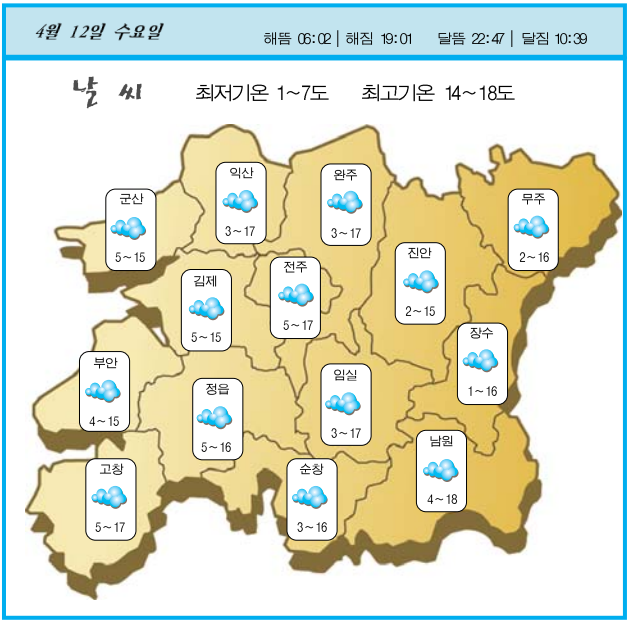
전북교육청-향교재단 업무협약 체결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1일 오전 도교육청 5층 접견실에서 학생의 문화·인성교육 증진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재)전라북도향교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내 학생의 문화적 소양과 인성 교육을 증진하고 평생교육을 진흥하여 건전한 문화교육 풍토를 조성하는데 협력하게 된다.

도교육청 담당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과 인성 교육을 증진시키고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우리 전통과 고전 교육 활성화와 전북도내 향교의 교육 여건 개선으로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교는 6백5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고유문화와 미풍양속을 전승해 온 유서 깊은 곳으로 그동안 교육과 제학을 동시에 담당해 온 기관으로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인성교육을 시행해 왔으며 전북에는 향교 26곳이 운영 중에 있다



임실교육지원청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꿈을 찾아 떠나는 권역별 토요상시프로그램'

전북도임실교육지원청 임실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매주 토요일마다 임실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꿈을 찾아 떠나는 권역별 토요상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8일에는 임실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실동중학교에서 드론 코딩, 일러스트드로잉 샌드아트 등 8개 분야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진로직업멘토들과 다양한 직업군 탐색은 물론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배우고 체험했다.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이 단순한 일회성 노점프로그램 이전에 자주 경험했던 진로탐색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소규모 농촌지역 아이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직업군과 모형을 중심

으로 한 협력적 진로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8명의 관내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여 더욱 안전하고 의미있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임실교육지원청 정나영 교육장은 "꿈을 찾아 떠나는 토요상시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인성적, 예술·문화적 감수성 등 내면적 아름다움이 길러지고 미래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진로를 인식하고 탐색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꿈을 찾아 떠나는 토요상시프로그램'은 임실권역을 시작으로 오수권역, 관촌권역, 갈담권역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매주 토요일 오전에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대박물관-전주류씨 진학재공과 연구 협력

전북대학교박물관(관장 김성규)이 최근 전주류씨 진학재공과 문중(회장 류희택)과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주류씨 진학재공과 문중은 선산에서 출토된 일괄 유물을 박물관에 기탁해 이에 대한 전문적인 학술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박물관과 문중은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활용과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해왔다.

진학재공과 문중의 선산은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에 위치했으나 1998년 전주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대대적인 이장이 이루어졌었다

무덤이 이장되면서 16~18세기에 해당하는 24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됐고, 묘제의 변천과정을 체계적으로 살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당시 조사 결과, 조선시대 지방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박물관은 연구협약의 일환으로 진학재공과 문중의 일괄유물을 재정리하여 올해 안에 도록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전북도 지정문화재 신청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